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연구원소식

<http://ecopia.incheon.go.kr>

보건환경연구원 소식
2020. 가을호

Vol.38

C contents

주요업무실적	03
보건분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결과	03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공품 안전성 조사	03
2020년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04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상반기 실적)	04
환경분야 인천시 대기측정소 확충으로 미세먼지 감시 강화	05
토양의 관리·보전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05
연안 해양오염도 조사	05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시험 능력 '만족(Satisfactory)'	06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가동, 대기오염 예측·분석기반 강화	06
산성강하물 자료수집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07
상반기 식물플랑크톤 분포특성 조사	07
동물분야 인천지역 소 전업 농장 및 젖소 농장에 대한 구제역 혈청 예찰	07
산란계 농장 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07
삼복 대비 닭 도축 검사 연장 추진	08
장마 기간 축산농가 질병 예방 사업 추진	08
주요추진계획	09
보건분야 분말·환 제품의 '금속성 이물' 조사 실시	09
환경분야 관내 아스콘 제조사업장 벤조(a)피렌 오염도 검사	09
동물분야 반추동물 큐열 모니터링 검사	09
천연기념물 원양 자연복귀 실시	10
인천지역 관내 공원 사육 사슴 결핵 검진 추진	10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실시	10
보건·환경·동물위생 정보	11
학술정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11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12
E형 간염 Q&A	12
가을철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주의하세요	13
2020년 달라지는 사항	13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안전 강화	13
2급 감염병에 'E형 간염' 추가	13
연구원 이모저모	14
활동, 행사 소식	14
수상 및 인사동정	15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16



보건 분야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결과

식품분석과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수거 제품 중 50 %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수입과자전문점과 문방구 등에서 수거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중 과자류 23건, 캔디류 16건, 조미건어포류 5건, 초콜릿류 4건, 기타 8건을 조사하였다. 검사항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전자를 이용한 PCR 분석 및 ELISA법을 이용하여 혼입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제품 56건 중 2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밀, 달걀, 토마토, 아몬드, 땅콩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과자류에서 21건(91 %), 초콜릿류 3건(75 %), 조미건어포류 2건(40 %), 캔디류 2건(13 %), 기타 1건(13 %)으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었다.

식품분석과는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준수를 위한 지도 점검 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 품목)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야황산류(최종제품이 SO₂로 10 mg/kg 이상 함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에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

❖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공품 안전성 조사

삼산, 남촌농(수)산물검사소는 유통 중인 향신 식물(가공품 포함) 80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향신식물은 음식에 첨가해 독특한 맛이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소분류로 허브류, 향신열매, 향신씨, 향신뿌리, 기타 향신식물을 신설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최근 식생활의 다양화로 국내 유통시장에 향신 식물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브류, 향신열매, 향신씨 등 관내 도매시장, 온라인몰 및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신식물 52건 및 향신료가공품 28건, 총 8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400종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검사 결과 향신식물 1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적합 품목 현황은 고수 3건, 딜 3건, 바질 2건, 로즈마리, 애플민트, 레몬그라스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농약이 초과 검출된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이 적용됐다.

삼산, 남촌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고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허브류 생산 농가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PLS 시행으로 일반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강화됐으나 허브류 생산농가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생산자가 올바른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일률 기준인 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



▲ 향신료 가공품



▲ 향신식물

❁ 2020년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인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2,178건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4건이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24시간 농산물 잔류농약 상시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지난해 373종에서 올해 400종으로 확대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매년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삼산·남촌(구월)농산물도매시장 1,869건, 관내 대형마트 90건 및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별로 농산물을 수거하여 조사하였으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24건, 641 kg을 압류·폐기하였다.

부적합 농산물은 15종으로 ▲향신식물 7건(고수 3·딜 2·로즈마리 1·애플민트 1) ▲취나물 3건 ▲참나물·방풍·쪽파·돌나물 각 2건 ▲세발·쑥갓·쑥·부추·머위·시금치 각 1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1.1 %로 지난해 상반기 0.8 %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올해 향신식물에 대한 집중감시 추진으로 인한 부적합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향신식물은 음식물에 첨가하여 독특한 맛이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이며, 최근 식생활의 다양화로 국내 유통시장에 향신식물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획검사로 향신식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24건의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였고, 관할기관 및 식약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통보하여, 도매시장 출하제한·과태료부과·행정지도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였다.

〈 향 신 식 물 〉



▲ 고수



▲ 딜



▲ 로즈마리



▲ 애플민트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상반기 실적)

식중독예방과는 식중독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식중독균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품 및 환경에서 △ 식중독균을 분리, △ 분리한 식중독균들의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 △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중독 예방과는 생산·유통·소비 단계 농·축·수산물, 생산 환경(토양, 용수) 및 조리식품 대상으로 식중독균을 분리하였다. 상반기에는 기준규격 검사 120건과 모니터링 검사 386건을 합친 총 506건을 검사하여 211건에서 식중독균을 분리하였다. 식품유형별 주요 식중독균 검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총계		조리·가공 식품	원료성 식품 및 식재료			환경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11		7	9	0	1	194
바실러스 세레우스	14	5	9	—	—	—
황색 포도상구균	2	2	—	—	—	—
병원성 대장균	99	—	—	—	—	—
— EAEC		—	—	—	—	2
— EHEC		—	—	—	—	14
— EPEC		—	—	—	—	61
— ETEC		—	—	—	—	2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	—	—	—	1	—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95	—	—	—	—	95

본 사업을 통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인천 시민의 공중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분야

❖ 인천시 대기측정소 확충으로 미세먼지 감시 강화

환경조사과는 올해 7~8월 중 측정소 미설치 지역에 미세먼지 자동측정소 5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측정소 2개소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미세먼지 과학적 감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설 교체된 측정소는 시험가동을 거쳐 10월 중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측정소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 미세먼지 자동측정소를 30개소(도시대기 24개소, 도로변대기 6개소)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현재 대기오염 감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 시민 정보 제공을 위한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13.6억원의 예산(국비지원 50%)을 적기에 확보하여 남동구 서창, 미추홀구 주안, 중구 영종, 연수구 아암, 서구 중봉 도로변 지역 미세먼지 자동측정소 신설을 비롯해 노후 자동측정소(송해, 고잔) 2개소는 새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한층 더 신뢰도 높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을 강화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차량과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이 인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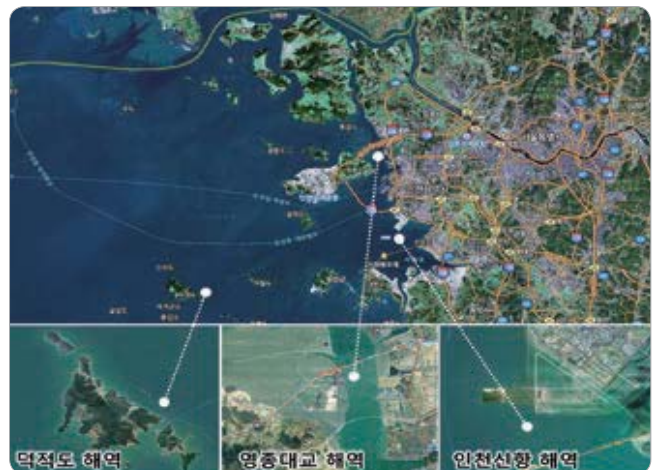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창, 영종 도시대기측정소(신설)

❖ 토양의 관리·보전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토양환경과는 관내 토양오염지역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점오염 지역인 교통관련 시설 지역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90개 지점을 선정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시료채취 및 분석을 진행 중이다. 토양오염 유형에 따라 표토 및 심토 시료를 채취 후 pH,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유기용제 등 일반항목을 포함한 총 23개 항목을 조사하여 오염 지역 및 오염원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토양을 정화·복원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양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연안 해양오염도 조사

해양조사과에서는 연안해양오염도 조사를 위해 인천신항, 영종대교, 덕적도를 대상으로 매월 1정점에서 24시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채수 및 현장측정을 진행하며(수온, 염분 등 9개 항목), 실험실로 즉시 이동하여 COD, DIN, DIP 등 9개 항목을 분석한다. 또한 Chl-a, 저층 DO, DIN, DIP 투명도를 통해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WQI, Water Quality Index)를 산정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2020년 상반기 수질조사결과, 인천신항과 영종대교는 보통(3등급), 덕적도는 좋음(2등급) 수준을 나타냈다. 인천신항과 영종대교의 등급은 지리적으로 내륙과 가까워 육상오염원(유수지, 준설투기장, 하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의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인천연안 및 하천의 환경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조사과에서는 양질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조사를 지속할 것이다.



▲ 연안 해양오염도 조사지점

❖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능력 ‘만족(Satisfactory)’

우리원 물환경연구부는 지난 4월부터 9월에 걸쳐 미국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와 Sigma-Aldrich에서 주관하는 환경(수질·토양·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에 참가하였고 49개 전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평가를 받음으로써 세계적인 분석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ERA와 Sigma-Aldrich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 평가기관이며, 국제숙련도시험(PT)은 시험검사의 정확성과 측정분석결과와 신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분석기관에서 참여하는 분석능력시험이다.

물환경연구부는 수질(Water pollution) 분야의 TOC 등 20항목, 토양(Soil) 분야의 벤조(a)피렌 등 12항목, 먹는물(Water supply) 분야의 카드뮴 등 17항목 평가에 참가하였고, 전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을 받아 국제인증 취득하였다.

우리원은 국제숙련도 평가항목을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의 35개 항목 대비 14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인증표준물질을 구입하여 내부숙련도시험을 별도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환경 분야 분석 데이터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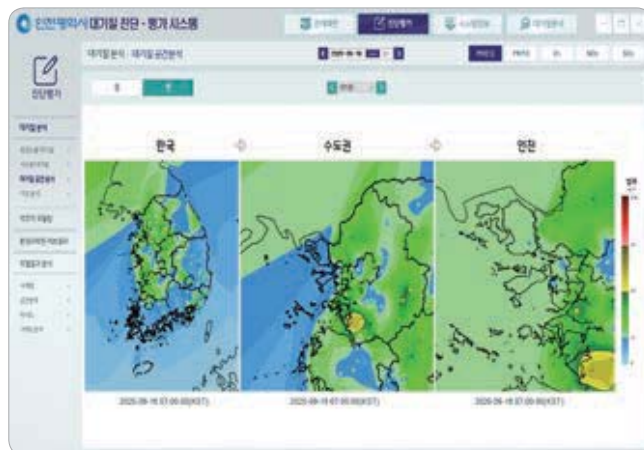
*분석능력 인증 항목

- 수 질(20항목) : TOC, COD, BOD, SS, 광유류, 총인, 총질소, 시안, 페놀, 카드뮴, 납, 비소, 구리, 크롬, 망간, 수은, 6가크롬, 벤젠, 클로로포름, 총대장균군
- 토 양(12항목) : 벤조(a)피렌,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TPH, 비소, 카드뮴, 납, 구리, 니켈, 아연
- 먹는물(17항목) :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수은, 시안,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불소, 질산성질소, 황산이온,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벤젠,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가동, 대기오염 예측·분석기반 강화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평가과는 대기오염 현황에 대한 각종 자료를 취합해 대기질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인천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2020년 7월부터 가동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대기오염, 기상인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자료를 상시 수집·처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인천시의 대기오염 현황 및 예측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정보화 시스템이다. 산출된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정보공개 시스템 홈페이지 대기질 현황진단(<https://air.incheon.go.kr>)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질 평가는 대기오염 실측값과 기상자료 등을 활용해 간접적인 평가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평가 시스템을 통해 대기오염도 및 관련 인자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지역 내 대기현황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여건에 맞는 대기오염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여, 대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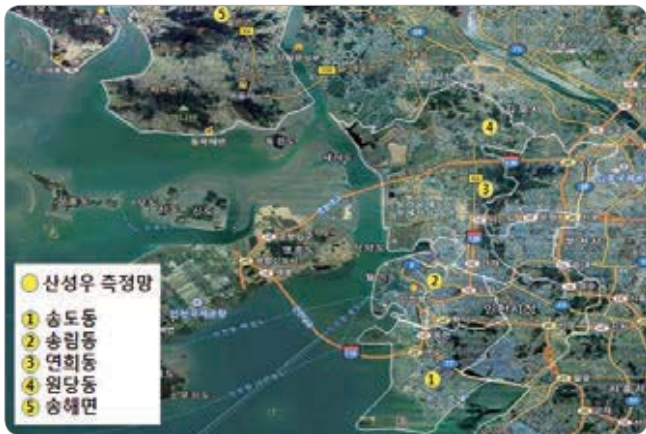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산성강하물 자료수집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기후변화과는 올 여름까지 산성강하물 자료수집시스템에 대한 구축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성강하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동추세를 규명하고, 실시간 자료수집으로 대기환경개선 정책계획의 수립 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H/W를 활용하여 실시간 산성강하물 측정망의 자료수집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 데이터로거(환경조사과)와 산성강하물 측정기기 5개소(송도, 송림, 연희, 원당, 송해)를 연결하고 통신을 연계시켰으며, 추후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 자료 등으로 받아 활용하고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산성강하물 분석체계를 최신 기술로 재구축하고 기존의 수동 분석 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료수집 시스템의 전환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수도권 산성강하물 협력체계의 흐름에 따라 과학적 분석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보 및 건강피해 저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다.



▲ 산성강하물 조사지점

❖ 상반기 식물플랑크톤 분포특성 조사

환경생태과는 수생태계 현황 및 수질변화 파악을 위하여 하천, 호소의 식물플랑크톤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대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올해는 하천 및 호소 12개소로 확대하여 진행 중이다. 상반기 식물플랑크톤 조사결과 하천 주요 분포종은 녹조류 유도리나(*Eudorina* sp.), 총생물량 9,800 cell/mL, 출현종은 2~17종이고, 호소에서 주요 분포종은 녹조류 클로렐라(*Chlorella* sp.), 총생물량 21,600 cell/mL, 출현종은 4~20종이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인천지역 하천·호소의 수생태계 자료 축적과 친수공간 조성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동물 분야

❖ 인천지역 소 전업 농장 및 젖소 농장에 대한 구제역 혈청 예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의 2020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계획에 따라 강화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연계하여 인천지역의 전업 소 사육 농장 및 젖소 농장에 대한 구제역 혈청 예찰을 조기 추진하였다.

2020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 해소 및 백신 미흡 농가 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예찰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50두 이상 사육하는 소 전업농 및 모든 젖소 농가에 대한 연 1회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연구원은 2020년 7월 까지 50두 이상 소 전업농 129개소 중 128개소(99.2%), 젖소 농가 42개소 중 39개소(92.9%)에 대한 혈청 예찰을 완료하였으며, 전 농가 백신 항체 양성을 적합으로 확인되었고 남은 4개소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도 2020년 3분기 중 추진 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목)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질(수포)이 생기며, 체온의 급격한 상승과 식욕 저하로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의 발생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가의 예외 없는 선제적 예방접종 및 의심신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가 필수적이다.

❖ 산란계 농장 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균 집중 검사를 실시하였다.

닭진드기(닭진드기 방제를 위해 살충제 등으로 구제를 실시함)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6월에 수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던 친환경 인증 농장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원화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내 산란계 농장은 휴업 등을 제외하고 총 12개소(남동구 2, 계양구 1, 강화군 8, 옹진군 1)와 메추리 4개소(강화군)를 추가하여 총 16개소에 대해 살모넬라균과 잔류물질(항생물질 46종 및 살충제 34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다.

향후 관내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가 실시되는 등 가정에서 안전한 계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삼복 대비 닭 도축 검사 연장 추진

보건환경연구원은 닭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삼복 더위 기간 중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닭 도축검사를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우리 시 닭 도축장은 1개소가 영업 중이며, 2019년 연간 728만수의 도축물량 중 성수기인 7~8월에 연간 도축량의 32 %인 230만수의 도축물량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7월 9일부터 25일까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도축 검사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 아침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도축물량에 따라 저녁 11시까지 연장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하였다. 토요일에도 작업요청이 있을 시 검사를 수행하여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 장마 기간 축산농가 질병 예방 사업 추진

- 장마 후 축산농가 예찰 및 긴급 소독지원반 운영

긴 장마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가축분뇨 유출, 축사 주변 물웅덩이 등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는 '농가 예찰 및 긴급 소독지원반' 편성·운영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방지 등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7개반 14명(2명/반)으로 구성하여 인천지역 총 400개 농가(소, 돼지, 닭 등)에 대하여 8월 18일부터 8월 31일(2주간)까지 농가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운영반의 주요임무는 가축 임상관찰 등을 통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사 등 임상증상 가축이 발생하였을 시 시료를 채취하고 병성감정까지 실시하며 축사의 전반적인 소독 등 방역, 환경 및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생석회 벨트 구축 확인과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 참여를 독려하며, 쥐·해충 구제 및 축사 주변 웅덩이 제거를 수행하였다. 또한 축사 내 습도 유지 및 악취 저감 활동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유실 및 무단방류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하였다.

농가 예찰 시 방문 때마다 방역복 등을 교체하며 차량 등 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축주 대면 시 마스크는 필수 착용하여 실시하였다.



폭염과 도축물량의 증가로 위생적으로 취약한 여름철에 작업 기구와 개인위생 도구의 위생 상태를 엄격하게 감독하였고, 도축장에 입·출고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가축질병 전파방지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도축검사와 함께 식중독균 등 유해병원균 차단을 위한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등 인체에 유해한 잔류물질 확인을 위한 검사도 집중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 도입된 잔류물질 신속검사 장비(Smart Kit) 활용을 통해 검사 시간 단축으로 도축장에서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 전에 폐기하게 됨에 따라 축산물 안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집중 호우 관련 긴급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축사 침수,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긴급 동물의료 진료반'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방지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기간은 8월 13일부터 상황 종료 시이며, 2개반(강화지역 1개반, 강화 외 지역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했다. 각 반에서는 가축방역관 혹은 공수의 1인 및 축협직원 1인으로 구성했다.

주요 임무로는 농가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가축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농가 확인 시 가축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보건 분야

❖ 분말·환 제품의 ‘금속성 이물’ 조사 실시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건강 증진 및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먹기 편한 다양한 식품, 특히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분말 형태의 제품이나 맛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향신료가공품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분말 형태의 제품에 금속성 이물(설탕가루)이 혼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원료(열매 또는 씨)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물갈, 칼날 등의 마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금속성 이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 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분말 제품 내 금속성 이물

올해 4월부터 분말·환 제품 제조업소에 ‘설탕가루’ 제거 공정을 의무화하였으나, 안전 기준(10.0 mg/kg 미만)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월 한국 소비자자원에서는 후추, 계피, 큐민 등 향신료 가공품 20건 중 14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고, 우리원에서는 시에서 의뢰한 제조업소의 분말 제품(노니, 새싹보리 등) 10건 중 5건(50%)에서 최대 8배 초과(최소 21.7 mg/kg ~ 최대 84.8 mg/kg)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수조사를 계획함에 따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

❖ 관내 아스콘 제조사업장 벤조(a)피렌 오염도 검사

대기보전과는 하반기에 인천 관내 아스콘 제조사업장 전체에 대해 벤조(a)피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벤조(a)피렌은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암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유기물질의 불완전연소, 산업 공정, 쓰레기 소각,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50 $\mu\text{g}/\text{m}^3$)이 적용되고 있다.

벤조(a)피렌의 대표적인 배출원은 아스콘 제조사업장으로, 골재와 아스팔트유 등의 고온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증발 가스로 인해 배출되는데, 인천은 관내에 23곳의 아스콘 제조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보전과는 2018~2019년 진행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사업장 벤조(a)피렌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 방지시설에 대한 벤조(a)피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업체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한다.



동물 분야

❖ 반추동물 큐열 모니터링 검사

강화방역지원과는 관내 한육우, 젓소 및 염소 농가에 대한 큐열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큐열은 원인균인 *Coxiella burnetii*에 의해 동물의 유산 및 불임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감염된 가축의 유즙, 대소변 및 양수·태반과 같은

배출물을 흡입하거나 섭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급성(고열, 폐렴, 간염) 및 만성(심내막염) 감염을 일으키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큐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중앙·지방 동물질병 공동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반추수 감염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인천 검사물량은 농가당 5수씩 160농가로 총 800두(소 155농가 775두, 염소 5농가 25두)에 대해 혈청 내 항체에 대한 ELISA검사를 진행한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86농가 430두(소 81농가 405두, 염소 5농가 25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9농가 13두(소 7농가 10두, 염소 2농가 3두)가 큐열에 대한 항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항체 양성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가축 유산 발생 시 병성감정 의뢰토록 요청하고, 축주 및 농장 종사자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인체 감염 여부를 확인토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 내 위생관리 및 진드기 박멸 등 농장 방역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강화방역지원과는 향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큐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방역대책 수립을 통해 가축질병 및 공중보건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 천연기념물 원앙 자연복귀 실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다가오는 10월 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날을 선정하여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11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올해 6월 24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7마리, 이틀 뒤 계양구 효성동에서 4마리를 구조하였으며, 모두 어미를 잃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비슷한 상황의 또래 원앙이었다.

원앙은 198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국내 보호종이다. 흔히 금슬이 좋은 부부를 빗대어 표현하는 대표적인 조류로, 매우 화려한 깃을 가지고 있는 쪽이 수컷이다. 현재 센터에 계류 중인 원앙은 아직 암수가 구분 될 시기가 아니라 비슷한 색과 모양을 지니고 있으나, 9월 중에는 암컷과 수컷이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으로 멋지게 변모할 예정이다.

어미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야생 행동 습성을 학습하지 못하였기에, 현재 센터 내 계류장에서 열심히 비행 연습을 하며, 먹이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안전

하여 서식지로 적합한 곳을 찾아 자연으로 돌려보내 줄 예정이며, 이들이 야생 생태계에 잘 적응하여 국내 보호종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조 당시 새끼원앙



▲ 현재 원앙

❖ 인천지역 관내 공원 사육 사슴 결핵 검진 추진

결핵은 인수공통전염병이자 심각한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끈질긴 전염병



이다. 동물에 있어서 한우, 육우 및 유우에 대한 결핵 검사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결핵병의 조기발견과 이환우의 조기 도태 등으로 결핵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슴의 경우 마찬가지로 결핵병에 이환이 되나 검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마취를 통해 검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슴 결핵병의 근절과 예방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9월 21일부터 관내에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공원 3개소(월미공원, 인천대공원, 센트럴파크)의 사슴 23두에 대한 결핵검사를 실시한다. 사슴 결핵병 검진은 우선 블로우 건(Blow gun)을 사용하여 마취시킨 뒤, 사람의 튜버클린(Tuberculin) 테스트와 같이 잠시 마취된 사슴 목 피부에 결핵 진단액을 투여하여 2~3일 후 주사 부위의 부어오른 정도에 따라 결핵 발병의 유무를 판가름한다.

또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사슴 사육 농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사슴 결핵검진을 민간에게도 늘려 나가 결핵병의 조기 진단 및 이환축의 조기 도태로 축산 농가 방역과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실시

우리시에 축산물영업장은 축산물가공업소 271개소,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99개소, 판매업소 3,551개소, 운반업 95개소 등 총 4,000개소에 달한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에 대하여 이화학검사(성상, 보존료, 타르색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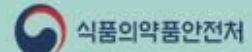
및 미생물검사(식중독균 등) 등을 실시하며,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찢소·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한우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까지 692건 실시하여 3건을 적발(대장균군 및 장출혈성대장균 검출)하였으며, 문제의 축산물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관련 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유통·판매되는 축산물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추석 명절에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학술정보



내가 사용하는 약, 어떤 성분일까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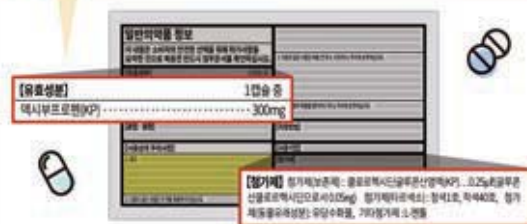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서류에 유효성분뿐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약, 어떤 성분일까요?

1 기재 순서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2 첨가제 중에서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먼저 표시

의약품 전성분 표시, 당신의 건강을 지켜요!



의약품 전성분 정보,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1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s://nedrug.mfds.go.kr>



2 상단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의약품명 검색

의약품안전나라 | 검색 | 제품안전 | 의약품이 궁금하다



3 의약품 상세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전성분 확인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자료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이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 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 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E형 간염 Q&A

Q1. E형간염이란 무엇인가요?

A1. E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 질환입니다.

Q2. E형간염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A2.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발열,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황달, 갈색소변 및 관절통 등입니다.

Q3. E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3.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감염이 드물게 일어날 수 있으며, 환자의 혈액을 수혈 받거나, 노출되었을 때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Q4. E형간염은 노출 후 얼마 후 증상이 나타나는가요?

A4. 노출 후 2~8주(평균 26~42일) 후 증상이 시작되며,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5. E형간염은 어느 정도의 중병인가요?

A5.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서는 자연 회복되나, 단 임신부 및 면역 저하자에서는 치명률 및 중증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6. E형간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A6. 특정 치료는 없으며, 보존적 치료(휴식, 수액 보충 등) 시행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국내에 승인된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Q7. E형간염은 어떻게 예방 가능한가요?

A7. 다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같이, 올바른 손 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물 끓여 마시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기 등을 통하여 예방 가능합니다.

❖ 가을철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주의하세요!

가을철 작업 및 야외 활동 시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을 매개하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SFTS는 SFTS virus를 보유한 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중증열성바이러스 질환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작은소피참진드는 주로 산과 들의 풀숲에 살고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viru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SFTS에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치사율이 약 20%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 ℃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을 경우 SFTS 발병을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5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SFTS는 특히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므로, 11월까지 등산, 나물채취,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 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고 장화 신기
 -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물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 받기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 의료진은 감염환자 혈액 및 체액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처치 시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 준수



▲ 작은소피참진드기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1mm)



▲ 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사진출처 : 질병관리본부〉

❖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민방위비상급수(음용수) 수질안전 강화

- 재난 등의 국가비상사기에 여러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개발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안전 강화를 위해 자연방사성물질을 추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 수질검사대상 및 수질검사항목 변경
 - 검사대상
 - 기 존 : 정부지원·지자체 시설
- ⇒ 변 경 : 공공용(개인시설) 포함하여 확대
- 검사방법
 - 기 존 : 연 4회 (먹는물 6항목 3회, 47개 전항목 1회)

⇒ 변 경 : 자연방사성물질 추가

☞ 우라늄 (연 1회), 라돈 (감시항목 반기 1회)

※먹는물의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기준

우라늄 : 0.030 mg/L 이하 / 라돈 : 148 Bq/L 이하(먹는물 감시항목)

❖ 2급 감염병 대상에 'E형 간염' 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7. 1. 시행)

★ 활동, 행사 소식 ★

장기근속 봉사상 수상

최은정 약품분석과장은 지난 6월 말 장기근속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30여 년간 공직에 헌신·봉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에 수여된다. 최은정 과장은 1990년 4월 울도위생처리장에서 환경 9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보건연구사 공채에 합격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에서 유통의약품 등 품질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미생물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농산물검사소, 감염병진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시민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TBN 경인교통방송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 인터뷰

일 시 2020. 7. 23. (목) 19:05 - 19:13

코 너 명 핫이슈&인터뷰

출 연 감염병진단과 송재용과장

내 용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이모저모(벡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입사례, 국내 유입전파 방지위한 감시동향 등)



야생동물 생태교육 실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8월 20일 인천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교육을 실시하였다.

센터에서는 구조 및 치료 중인 야생동물 사례를 포함한 야생동물 매개 자연보호 교육 및 수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은 우리 시의 서식 야생동물 생태파악을 통해 야생 동물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하고 생태 보존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진료 과정 체험과 사례 분석을 통해 동물보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여자중학교 1학년 2명과 명선초등학교 2학년 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교육홍보실 및 외부 계류장 등에서 야생동물 생태보호 교육과 수의사 직업체험을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여자중학교 장다경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야생동물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프로그램은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방문 시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밀집하는 교육홍보실에는 공기살균기를 구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식품기술사’ 최종 합격

삼산농산물검사소에 근무하는 박병규 연구사가 제120회 기술사 시험에서 식품분야 최고 권위인 ‘식품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

식품기술사는 식품의 개발, 생산, 관리, 위생, 안전 측면을 고려한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박병규 연구사는 오랜 실무경험과 관련 지식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성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식중독예방과 신설

조직개편(2020. 7. 20.)으로 질병연구부에 식중독예방과가 신설되었다. 분장사무로는 급성설사질환감시사업, 식중독 원인조사, 식품 등 기준·규격(미생물항목) 검사,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및 유전자변형 식품(GMO) 검사 업무 등이 있다.



* 수상 및 인사동정 *

인사 동정

♦ 2020. 7. 20.

승진

이충대(지방환경연구관) 대기환경연구부장

전보

추완중(지방환경연구관) 대기환경연구부 대기보전과장

오성숙(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질병조사와

김명덕(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질병조사와

고연자(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감염병진단과

김정희(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송성민(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이동건(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김주희(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권미진(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이은주(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약품분석과

염미숙(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삼산농산물검사소

여은영(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남촌농수산물검사소

이보민(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남촌농수산물검사소

박진영(지방환경연구사) 대기환경연구부 환경조사와

이병욱(지방환경연구사) 대기환경연구부 생활환경과

박홍경(지방환경연구사) 물환경연구부 토양환경과

김오목(지방환경연구사) 물환경연구부 산업폐수와

황혜진(공무직)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정지은(공무직)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전입

김상대(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장

송혁재(지방행정주사) 총무과 경리팀

한효식(지방행정주사) 총무과 경리팀

복직

이희수(지방환경연구사) 물환경연구부 환경생태과

♦ 2020. 8. 5.

시보해제

손정은(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질병조사와

고현정(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질병조사와

권미진(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김주희(지방보건연구사)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

신민정(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식품분석과

조아름(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약품분석과

♦ 2020. 8. 15.

승진

남화정(지방보건연구관) 질병연구부 식중독예방과장

방준상(지방환경연구관) 대기환경연구부 생활환경과장

양하영(지방수의사무관) 동물위생시험소 강화방역지원과장

시보해제

임수민(지방보건연구사) 식약연구부 식품분석과



청딱지개미반날개 (화상벌레)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화상벌레)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자생종으로 1968년 전남에서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음. 형태는 매우 가늘고 작으며(폭 1mm, 길이 7-8mm)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복부중간의 딱지 날개는 파란 또는 초록을 띠는 금속색 광택을 나타냄.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여 일명 '화상벌레'라고도 함.

화상벌레 접촉으로 인한 피부질환 유발 시 증상은?

가려움을 동반한 작열감과 따끔거림, 발진, 수포가 생기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급성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았을 때 대처 요령은?

-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합니다.
- 코르티졸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 가능하며, 냉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을 절대로 비비지 않습니다.
-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화상벌레 이렇게 예방하세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구 등을 사용해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화상벌레는 야행성으로, 밤에는 커튼 등의 가림막을 이용합니다.



방충망을 설치하여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소매와 다리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합니다.



모기 살충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